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300 FAX: 563-398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우리 교회 조직 개편 완료

당회 산하 13개 위원회, 8개 기관으로 제직회는 재정 업무만 처리토록

교회는 지난 8월 5일 개최된 7월 정기당회에서 교회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약 3년간 시행되어온 제직회 산하의 각 부 활동을 폐지하고, 제직회는 본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준한 재정 업무 활동에만 전담기로 하고, 임원진으로 회장, 서기만 두기로 했다.

또 예배위원회에 안내부가 신설되었으며, 선교위원회에 북한

선교권이 신설되었고, 구제위원회가 없어지고, 구제, 경조, 차량 관리, 환경미화부를 한 데 묶어 봉사위원회를 신설했다. 기관에서는 관인 충현유치원을 비롯하여 충현성경연구원, 충현유아원, 충현초기교육원, 한국교회성장연구원, 해외선교연구원, 경로대학, 전도교육원, 구역장대학을 묶어 '충현교육훈련원'으로 명칭을 붙였다.



지난 농어촌 전도 기간 동안 파송받은 전도자들은 농어촌 지역에서 전도를 실시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실정도 단편적이나마 피부로 느끼고 돌아왔다. 이 가운데 용산교회(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소재) 인근 마을은 주로 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우리 교회는 용산교회 인근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감자를 대신 팔아 주기로 하였는데, 성도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

· 판매일: 9월 2일(수), 9월 3일(목)
· 장소: 식당 뒷편(지하 1층 주차장)
· 가격: 5만(20kg)에 8천원

**교회 설립 기념일에
할렐루야찬양대 주관 음악예배**

교회 설립 39주년이 되는 오는 9월 6일 찬양예배 시간에 할렐루야찬양대(대장 이훈 장로, 지휘 김영준 집사, 오케스트라 지휘 남궁조 선생, 반주 김신영 선생) 주관으로 설립 기념 음악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찬양대는 이 예배에서 모짜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연주하게 된다.

충현기도원 부흥성회 내일부터

충현기도원 부흥성회가 드디어 내일(24일) 개최한다.

이미 광고된 대로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부흥성회는 “기도로 승리합시다”라는 주제 아래 김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 낮 성경공부 오전 10시 30분
· 저녁 부흥성회 오후 8시(준비 찬송 7시 30분)

· 강사: 김창인 목사, 신성종 목사, 유창무 목사
· 무료 교통편: ·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부터 7시에 교회에서 출발
· 저녁 집회 후 기도원에서 천호동, 잠실, 교회 방면으로 출발

장학생 선발 92년도 상반기 장학생 1학기 성적표 제출 요망

우리 교회 장학회(회장 김의철 장로)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92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키로 하였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92년도 1학기 성적을 심사하여 1학기때 선발된 장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에 장학회는 92년도 상반기 장학생들이 오는 8월 30일까지 1학기 성적표를 교육관 103호로 제출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요한11지회 총동원 친교대회

요한전도회 제11지회(회장 조중덕 집사)는 교인 배가운동을 위한 전도 방법을 모색코자 8월 월례회를 총동원의 날로 정하고 오는 8월 29일(토) 오후 5시 고덕동에 위치한 그린공원(주공아파트 2단지 후문 근처) 축구장에서 친교대회를 갖는다. 주최측은 제11교구에 속한 40세 이하 남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441-1843, 6289.

충현금요찬양 리더 모집

충현금요찬양을 위한 제2기 리더를 모집한다. 찬양으로 헌신하실 성도들의 성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청년1부 영성훈련

· 일시: 8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교육관 514호
· 주제: 효과적인 성경 접근법 (성경해석의 원리)
· 강사: 김찬곤 목사

폐지를 모으자

자원 재활용과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기로 한 폐지 수거 운동이 성도들의 깊은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운동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적극 참여하여 나라 사랑의 모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수거품목: 낱까 지닌 신문 혹은 잡지
· 수거장소: 배바게광장 경비실 뒷편

93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설명회

· 일시: 8월 30일 오후 3시
· 장소: 갈릴리움
· 참석자: · 장로, 안수집사
· 남녀 교역자
· 각 위원회 및 기관의 서기, 회계
· 교회학교 남녀 부장, 처장
· 찬양대 부대장, 서기, 회계
· 교회 행정부서 과장

92년도 제2학기 성경연구원 개강

· 개강예배: 9월 5일 배다니움
· 과정: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 수강신청: 교육관(교육관 103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회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딤후6:11)

충현프리즘

◎...포도원의 넝쿨을 하는 여우가 있다던가. 최근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때 기도 시간을 이용하여 남의 물건(혹은 돈)을 살짝하는 이방인 한, 두 사람이 있어 성도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워낙 교인 숫자가 많은 우리 교회인지라 눈여겨보지 않고는 이 방인을 가려낸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교회의 경비요원,

차량안전요원들이 있긴 하지만, 일시에 수천명씩 몰려드는 교인들 틈 사이에 여우같은 이방인이 끼여 있어 은연 중에 반으러 왔다가 불쾌한 일로 시함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때 교회당 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교인들을 제복 입은 안내위원들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제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일이지만, 공동체의 유익과 성도의

교제를 위해 부득이한 처사임을 이해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협력해야 하겠다.

◎...여름철 휴가도 끝나간다. 잠시 해이해졌던 몸도, 마음도 가다듬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불규칙적인 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환원하고, 더위 때문에 오는 모든 스트레스도 이제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마감되어야겠다.

교회는 이제부터 바쁘게 되었다. 24일

부터는 기도원 부흥성회가 있고, 9월 14부터는 제5학기 전국 목회자세미나, 9월 5일부터는 성경연구원이 개강되어 교사양성부, 주간성경공부, 찬양대원양성부가 있게 되며, 오는 10월 8일부터는 김선운 목사를 강사로 교회 가을부흥회가 개최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개인의 신앙 성숙, 영성 재무장과 체험의 기회를 얻고 복음 전파와 확산 운동에 전력할 때이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기도할 때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마6:5~15)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7분 동안만 호흡을 안해도 뇌가 썩어 죽고 맙니다. 그 정도로 호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대주어서 그들의 뇌가 썩지 않게 해 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1. 거짓된 기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6:5)

거짓된 기도라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배우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기도, 잘못된 기도는 배우처럼 외식하는 기도인데, 첫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고, 셋째는 마음에 죄를 품고서 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마음에 죄를 품고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길가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가는 도중 큰 길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마6:7). 그러한 기도는 마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길게 잡으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짧은 기도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확신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증

하게 보시고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2. 참된 기도

그러므로 성도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6:6)

참된 기도란 첫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말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미사여구나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3.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6:9)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그저 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문을 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비슷하게 이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6:9)
제일 먼저 ‘아버지여’입니다. 어떤 분들의 기도는 서론이 너무 길다.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 거룩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길게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뜻합니다. 죄가 많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우리를 하나 하나 다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

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며, 사랑의 아버지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송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분석해보면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 다음으로 세 가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삶 속에서 불안하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주기도의 내용

(1)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6:9)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분별한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영광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마6:10)

여기서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첫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영토적 개념으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벌써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이 말씀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불평없이 순종하듯 이 땅에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2)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6:11)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배를 따라 따뜻한 밥을 줍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꼭 먹는 양식만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영육간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6:12)

주기도를 할 때 어떤 구절이 가장 어렵습니까? 저는 12절을 드릴 때에 가슴이 따끔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를 하지 못했는데...” 때로는 감정이 격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욕설들이 오고갑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외울 때 뻔뻔스럽게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용서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이 잘못된 것은 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6:13)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다고 해서 시험에서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탄의 시험에서 완전히 제의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3)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기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6:13)

이 기도 내용은 괄호 안에 있고 ‘고대사본’에 이 괄호 내의 구절이 없음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4세기에 만들어진 고대 시대상본, 알렉산드리아사본, 바티칸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은 ‘대체로’(大概)라는 뜻이 아니라 ‘일의 큰 원칙을 보아서 말하건대’(大體)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I.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 방향과 그 방법

북한 선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선교 전략들을 세워본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바이다.

가. 주체사상 연구

북한을 이해하려면 먼저 주체사상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교 자체도 이러한 주체사상적 접근을 통한 선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선교 주체는 남북한 기독교인 모두가 되어야 한다. (2) 외세의 간섭이나 보조를 받지 않는 자주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 (3) 북한의 주체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이론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4) 선교에 방해되는 구조적인 장애물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5)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지상왕국의 건설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6) 만남을 통한 대화가 정기적으로 국내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 선교적 사명을 자각하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공산권 선교에 대한 열정이 보다 새롭고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나. 평화 선교

남북한의 지상 최대 목표는 통일이다. 양쪽 모두 통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있어서 이 통일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지 교회는 화해의 사도로서 통일을 위한 온건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나 극단적 행동은 정치적인 문제를 복잡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총리 회담에도 결과적으로 걸림돌이 되며 교계에 불필요하게 혼란을 일으키는 무모한 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문화 선교

평화통일이 되면 우리는 교회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 '92 중헌 북한선교세미나 ●

제3강의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전략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 제1강의 : 통일의 전망과 북한 선교의 향후 과제(이원설 교육부 교육심의회 회장)
- 제2강의 : 남북 대화와 북한 선교(최문헌 통일연수원 원장)
- 제3강의 :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전략(김상복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그런 생활에서 살아온 그들의 영적 요구와 그들의 생활을 분석 연구하여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연 중에 침투시킬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선교 방법이 필요하다. 복음은 문화적 기반 위에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북한 선교에 필요하다.

(1) 한국 교회는 북한 사회구조 속에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혼돈과 괴리 현상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2) 문화 창조의 공동체라는 자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화 선교의 포괄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북한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해야 한다. (4) 평화통일문화를 조성하여 신뢰사회,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5) 복음적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라. 방송 선교

최근 방문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서울의 모든 방송이 평양 시내에서 분명하게 들린다고 한다. 문제는 그들에게 개인 소유의 라디오가 없다는 사실이다. 라디오 보급이 필요하다. 서울 극동방송의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남포에서 청취하였다는 한 필리핀 외향선원의 보고가 있다. 또한 같은 방송국의 해외방송과장이었던 폴 이스터브룩씨가 평양을 방문하였던 1979년 7월에 평양 시내에서 극동방송 프로그램을 아주 명확히 청취

했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電波)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모든 문서적 방법과 방송매체적 방법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1985년 5월 6일 북한 선교회 상임위원회 경건회 시간에 미국 캘리포니아 갈보리교회 케이스 리터 목사가 북한에도 8, 9명씩 몰래 예배를 드리는 지하의 가정교회가 있으니 이러한 모습이 방송 매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는 공개적 내용을 거부하였지만 지금도 북한 지역에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으며 그러한 역사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 이산가족 재회 운동

남북의 천만 이산가족찾기와 교류를 기독교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한 명씩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을 풀고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 천만 이산가족 교류는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 다양한 북한 선교 정책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해주고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실된 동포애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

선교 사역을 북한 교회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1) 북한의 실정 파악(각종 자료 수집, 집회 참가, 북한 신자와의 만남, 북한 방문자 면담, 각종 뉴스를 통해) (2) 남북 그리스도인 교류 촉구, 북한인 초청 (3) 북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원조(성경, 찬송, 설교대어, 서적) (4) 북한 전도에 필요한 아이디어 수집 (5) 북한 전도에 필요한 홍보 활동 (6) 북한 전도를 위한 재정적 모금 (7) 북한 선교를 위한 교계적 협의와 계획 수립 (8) 의료 선교(병원 설립, 이동병원 운영) (9) 영어교사 파송 (10) 북한에 부족한 자원(쌀, 약, 잉크, 분유, 사탕) 지원 (11) 컴퓨터 전문가 (12) 기독교 신자들의 지속적 북한 방문 (13) 북한에 필요한 강의 지원 (14) 사업 공동합작 제안 (15) 기독교 대학생들의 북한 대학생들과의 각종 접촉

III. 북한을 위한 기도

가. 북한의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현재 북한의 기독교연맹과 두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 과거에 북한의 신자들이 공산당원에게 발각되어 순교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고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아 있는 소수의 신자들과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 기독교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책과 지도자들의 마음이 변화하도록 기도하자.

80년 이후 김일성 부자는 기독교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태도

를 보여주고 있다. 성경의 발행, 교회의 설립,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과 신설이나 최근 목사들에 대한 긍정적 표현들이 더욱 더 발전적인 태도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자.

다.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신앙문서가 들어가서 읽히지도록 기도하자.

북한 왕래자들에 의해서, 작은 소포를 바다에 띄우며, 풍선이나, 우편물을 통해서, 여행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경과 신앙문서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북한에 약간씩 들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북한에 성경이 들어가서 많이 보급되고 어려운 처지의 신자들이 읽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천국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하자.

라. 라디오 복음전파의 좋은 효과와 듣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북한 사람들과 그곳 신자들이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이다. 북한에 방송을 보내는 관계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트랜지스터 라디오 보내는 일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음)

마. 남한 교회가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선교 전략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자.

남한에서는 북한을 위한 선교 전략들이 다양하게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계획하고 진행하는 단체들과 담당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자.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기도하자. (끝)

장로칼럼

근검 절약하는 성도의 생활



김광남 장로 (감사위원, 초등1부 부장)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라의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현당을 한 지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헌당하기까지의 일들 중 몇 가지만 더듬어 본다면,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남의 집에

서 일을 하여 받은 대가를 건축 헌금으로 바친 성도를 비롯하여 전세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의 집에서 양돈 일을 해주고 받은 보수로 매월 불입한 주택부금을 기도하는 중에 절반을 건축 헌금으로 바친 성도, 그리고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를 얻고 남은 돈을 건축 헌금으로 바친 성도 등 이루말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허리끈을 졸라매며 정성을 다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바친 헌금으로 지어진 예배당임을 중헌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도들의 생활이 많이 풍족해져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동안 근검 절약하던 생활이 습관화되어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좀 지나치리만큼 검소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동편 경비

실을 비롯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반입되는 음식물이나, 4부 예배가 끝나면 각 기관이나 부서로부터 쓰레기로 변하여 나와, 쓰레기통을 채우고도 넘쳐서 보기에도 흉하고 심하면 악취까지 풍깁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당회를 비롯하여 교구위원회나 교육위원회의 회의 시간에 음료를 없애고 그 대신 생수를 마시며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서 각 부서에서는 좀 더 근검 절약하여 쓰레기도 줄이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길이 보존하는 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2:3, 4)

다음호 칼럼은 강순용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독자의 글 ●

기쁨과 감사의 여행

- 농어촌전도여행을 다녀와서 -

안명희(사랑부 교사)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10:1)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저는 올해에도 농어촌전도를 다녀오게 되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다녀오는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곳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기 위한 준비로 학용품들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려고 한참 무더운 날,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도매 시장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중에 신랑예수를 맞는 다섯 처녀의 기쁨을 준비하는 마음을 느끼며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넘쳤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전도를 떠나기 위해 우리 대원들이 처음 준비 모임을 가졌을 때 성경학교를 인도할 선생님이 저와 인형극을 잘하는 선생님 단 둘뿐이었습니다. 시골 교회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의 선생님만으론 성경학교를 인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였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네 명의 선생님을 더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하루 전인 주일, 가기로 했던 반주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마침 청년 3부 집회 시간이라서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주하는 전혀알지 못하던 자매에게 우리의 사정을 얘기했더니 마침 내일부터 휴가라며 함께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 8)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작년 11월에 처음 세워진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대신중현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작은 천막 교회입니다. 인근 마을은 천주교와 불교가 오랫동안 뿌리내린 곳이며 이단 교회도 있어 전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기도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하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할 때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는 받은 선물을 집에 가지고 가면 혼나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갈 수 없다며 울기도 하였습니다.

축호 전도를 할 때는 말을 채껴내기도 전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문전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을 나오며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동안 좋은 일기를 허락하셔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니 떠나오는 날 비가 내려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강도사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

으니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멘 하였습니다.

떠나오는 날 아침 일찍, 성경학교에 나왔었던 아이들이 부모님이 밭에서 막 따주셨다면서 수박을 가져와 시골의 훈훈한 인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과 정이 들었는데, 떠나려니 섭섭하였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가 마을을 벗어나려고 다리를 지날 때 아이들이 다리에 모여서 우리들을 배웅하

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들은 모두 울고 말았습니다. 그곳 사도님께서 우리들이 탄 버스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며 서 계셨습니다. 섭섭한 마음으로 얼마 동안 울적해 있던 우리들은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하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에 천막 아닌 아름다운 성전도 세워지고 복음의 많은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상금(초등6부)

국민학교 마지막 성경학교라 기대와 감회가 새로웠다. 더욱이 1박 2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열리므로 무엇인가 새로운 느낌이었다.

개강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실은 너무 산만했다. 떠드는 아이며, 가요도 부르고, 너무 경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언짢은 마음으로 숙소로 갔다. 짐을 풀고, 워크북을 보았다.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었다. 바로 '천로역정'과 김광국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였다.

빡빡한 일정 중에 기다리던 천로역정 시간이 왔다. 모두 8코스로 이루어진 것인데, 힘이 들 것도 같고, 재미있을 것도 같았다. '소망의 출발' 등 여러 코스에서 힘들기는 했지만 새로운 감화와

정말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자란 것 같았다. 자신의 죄를 5가지씩 쓰는 코스로 있었는데, 5가지를 생각하려니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쓸 것이 5가지가 넘었다.

기다리던 부흥회 시간에는 모의 유서를 썼다. 정말 경건한 시간인데도 웬지 새로운 기쁨이 솟구쳤다.

"하나님, 우리 초등6부를 언제나 지켜주세요. 이 기회에 은혜충만한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통성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다. "하나님 저희들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초등6부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 구역예배 ●

(1992. 8. 28)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

· 본문 : 마태복음 6장 19절~24절 · 찬송 : 367장, 377장
· 요절 :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현대를 가리켜 물질만능주의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물질이 현대라는 사회에 가장 위력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인간이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의 생활은 물질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물질의 관리자의 위치에서 점점 숭배자의 위치로 전락되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까?

1.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의 초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은 우리의 생활 수단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사라져버릴지라도 그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한 모든 것은 영원한 나라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물질을 관리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물질 관리의 실패로 말미암아 신앙 생활이 퇴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딤후6:10).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

하더라도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른 물질 관리의 시발점입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였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결국 신앙의 시험대를 통과하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창13:8~12). 바른 물질 관리는 신앙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3.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 관리 중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구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구제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마25:40). 또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먼저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른 물질 관리의 척도입니다.

◆ 결론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인간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지만, 인간들의 욕심이 물질을 더럽고 악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악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악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 적용 및 기도

1.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물질 관리를 잘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소서.
2.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구제 생활이 각 개인과 가정에 지속되게 하소서.